



해외 주요 타이어업체 동향

1. 세계 주요 타이어업체 실적 (09년 3/4분기 및 1~9월)

실적이 공개된 세계의 주요 타이어업체 중 일본의 주요 타이어 메이커인 브리지스톤, 요코하마, 도요 등은 수익상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반면 피렐리, 쿠파, 일본의 스미토모 등은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 08년 세계 5위 타이어제조사 매출현황〉

순위	회사명 (국가)	타이어 매출 [백만\$]	* 비중 [%]
1	브리지스톤 (일본)	23,435	75.0
2	미쉐린 (프랑스)	22,820	95.0
3	굿이어 (미국)	18,525	95.0
4	콘티넨탈 (독일)	8,100	22.8
5	피렐리 (이탈리아)	6,003	88.2

주 : * 비중 : 제조사 전체 매출 중 타이어사업부 매출의 비중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10.2.15일자

● 브리지스톤

브리지스톤의 그룹전체 실적을 보면, 09. 1~9월 간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한 206억 불이었고, 영업이익은 90% 크게 감소한 1억 3,310만 불, 순수익에 있어서는 3억 250만 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이러한 감소요인으로 일본 사업 여건 악화, 소비자 지출 감소, 상용차용 부문 설비 투자 감소 등을 꼽았으며, 동시에 동사는 중국시장이 점증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기타 아시아 시장에서도 회복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매출이 24% 감소한 93억 1,000만 불, 영업이익은 7% 감소한 2억 5,100만 불을 기록하였고, 일본시장에서는 매출이 76억 2,000만 불로 30%의 감소를 보였으며, 영업이익은 3억 1,070만 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유럽시장은 매출이 1,000만 불로 32%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약 1억 5,000만 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한편, 타이어 판매에 있어서는 세계 전체 매출이 24% 감소한 약 170억불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1억 6,010만 불로 83% 감소하였다. 한편, 동사는 09년 연간 실적 전망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지역에서의 공장 폐쇄에 따른 것이다.

● 피렐리

피렐리 그룹은 3/4분기 동안에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지불 전 영업이익이 약 55% 크게 증가한 2억 730만 불, 매출은 15억 2,000만 불을 기록하였고, 순수익면에서는 5배 이상이 증가한 5,360만 불을 기록하였다. 동 그룹에 따르면 이러한 좋은 실적은 원재료 비용 감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품 가격 및 믹스 활동에 있어서의 향상, 시장 수요 회복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시장에서 성장률이 증가하였다. 09.1~9월 기준 실적으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43억 2,000만 불이었고, 세전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5억 5,880만 불을 기록하였다. 한편, 컨슈머타이어(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부문의 매출은, 3/4분기에는 교체용 시장 수요의 향상과 신차용 부문의 약간의 감소 등이 반영되어 3.1% 증가한 10억 7,000만 불 이었으며, 09.1~9월간에는 30억 8,000만 불로서 4.5%의 감소율을 보였다.

● 스미토모

스미토모 그룹은 3/4분기에 매출이 16.6% 감소한 14억 1,000만 불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서 7,780만 불, 순이익에 있어서는 5,470만 불의 이익을 창출하였다. 09.1~9월간으로는 순이익에 있어 1억 7,970만 손실과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45.8% 증가한 1억 970만불의 이익을 기록하였고, 매출은 18.3% 감소한 39억 6,000만 불을 기록하였다. 타이어사업부의 실적을 보면, 09. 3/4분기와 1~9월간의 영업이익이 각각 5,000만 불과 7,670만 불의 이익을 기록하였고, 매출은 각각 17.2% 감소한 11억 8,000만 불과 18.3% 감소한 32억 5,000만 불을 기록하였다. 북미시장에서의 매출은 3/4분기 간에는 17.8% 감소한 1억 9,960만 불, 그리고 1~9월간에는 19.2% 감소한 6억 1,100만 불을 기록하였다.

● 요코하마

회계연도가 3월 31일로 끝나는 요코하마 그룹은 09.4~9월 상반기간 타이어와 고압 호스의 판매량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의 영향이 비용 감소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를 상쇄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면에서 각각 2,630만 불과 4,280만 불의 손실을

겪었으며, 매출에서도 21.3% 감소한 22억 2,000만 불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동 그룹은 이러한 상반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09년 연간 흑자의 기존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타이어 사업부의 실적에 있어서는 일본, 북미,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매출이 19.5% 감소한 17억불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2,740만 불의 손실을 보았다.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은 4억 4,500만불로 19.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1,000만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동 그룹은 2010년 3월 31일로 끝나는 연간 실적에 대하여 매출은 10.1% 감소한 51억불, 순이익은 약 7,700만 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쿠파타이어

쿠파타이어사는 3/4분기 동안에 순수익면에서 08년 동기간 5,540만 불 손실에서 09년 동기에는 468만 불의 이익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08년 동기간 4,700만 불 손실에서 09년 동기간에는 7,070만 불의 이익을 기록하였다. 매출에 있어서는 4% 증가한 2억 9,700만 불을 기록하였는데, 동사에 따르면 이 같은 수익 및 매출 창출은 제품 믹스, 가격과 관련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비용 감소와 제조비용 절감 향상에 힘입은 것이다. 동사는 3/4분기 동안에 미국 Albany 타이어 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하여 1,300만 불의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다. 09.1~9월 기준으로 쿠파사는 순수익 면에서 08년 동기 7,590만 불 손실에서 1,260만 불의 이익을 창출하였고, 매출에 있어서는 20억불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를 보였다. 북미시장의 매출에 있어서는 09년 3/4분기 간 2% 감소한 5억 7,400만 불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08년 동기 5,100만 불 손실에서 09년 동기에는 4,800만 불의 이익을 기록하였다.

● 도요

도요 그룹의 09년 4~9월 상반기 간 수익실적은 영업이익이 1,400만 불 손실, 순이익이 2,200만 불 손실을 각각 기록하였고 매출은 25% 감소하였다. 하지만 동 손실 규모는 예상보다 나은 비용 절감책의 결과와 일본 엔화의 가치하락 등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지난 5월 동사가 전망한 손실 모의 약 절반 수준이다.

한편, 타이어 사업부의 실적에 있어서는 일본외의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 영향으로 21.6% 감소한 10억 7,000만 불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중국과 중남미 시장에서는 판매량에 있어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 기타 주요 타이어 제조사들

기타 주요 타이어 제조사들의 09년 3/4분기 실적을 보면, 콘티넨탈 그룹은 08년 동기 58억 유로에서 53억 유로로 매출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굿이어는 08년 동기 3,100만불 순익과 51억불 매출에서 09년 동기에는 각각 7,200만불 순익과 44억불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였다. 08년 3/4분기 42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던 미쉐린은 09년 동기에 감소를 보이면서 37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한편,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30대 초중반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Titan International은 08년 동기 2억 5,550만불의 매출과 1,030만불의 순수익에서 09년 동기간에는 1억 4,150만불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순수익에 있어서는 1,110만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자료 : 미국「Tire Business」09.12월호,
「Modern Tire Dealer」09.12월호〉

2. 세계 주요 타이어업체 최근 단신

브·리·지·스·톤



인도 Kheda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 계획

브리지스톤사는 인도시장에서의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수요 확대에 따라 동사의 인도 공장에 5,630만 불을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 투자계획으로 인도 Kheda 공장은 금년 중반까지 일간 15,000개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300명의 인원이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2010.2.1일자)〉

아메리카 시장 판매망 확대

브리지스톤 아메리카(Bridgestone Americas)사는 지난해 북미와 남미시장에서 동사 소유 소매점을 68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동사의 세계 시장에서의 소매점 수는 2,160개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Firestone Complete Auto Care, Tires Plus, ExpertTire, Wheel Works 등의 이름으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동사의 BSRO (Bridgestone Retail Operations L.L.C.)는 금년에도 60개의 소매점을 더 늘릴 계획이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10.2.15일자)〉

미·쉐·린



일본 Ota 공장 폐쇄 및 인도 트럭타이어 공장 설립 계획

미쉐린사는 높은 생산비용을 이유로 금년 7월까지 일본의 Ota 공장에서의 타이어 생산을 중단

할 계획이다. 동 공장의 고용인원은 380명이며,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타이어를 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동 공장의 폐쇄와 관련하여 약 4억 1,000만 유로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으며, 동 비용에는 일본 시장에서의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프랑스 공장에서의 생산 효율화, 북미지역 제조 및 판매활동의 재조정 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할 것이다. 한편, 동사는 향후 2~3년 간 8억 7,000만 불을 투자하여 인도 남부지역에 트럭 및 산업용 타이어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동사는 인도 Chennai 근처 Thiruvallur에 동 공장 건립을 위한 290에이커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동 공장은 2012년에 생산을 시작하고 약 1,500명의 인원이 고용될 예정이다.

〈자료 :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2010.1·2월 통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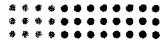
미국 「Tire Business」 (2010.2.1일자)〉

브라질 Mato Grosso 천연고무 농장 매각

미쉐린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운영해오던 브라질의 Mato Grosso 천연고무 농장에서의 수확을 중단하고 동 농장을 현지의 한 회사에 매각하였다. 동사의 이 같은 매각결정은 동 농장의 부적합한 현지 기후로 인하여 브라질과 기타 국가에서의 다른 고무농장에 비하여 고무나무 한 그루 당 수확량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또한 동사는 고무나무 경작에 있어서의 확대는 더 이상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 미국 「Rubber&Plastics News」 (2010.2.22일자)〉

곳·이·어



멀티브랜드 GS 전략, 'Republic' 대신 'Kelly' 브랜드 프로모션

곳이어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동사의 'Republic' 연합(associate) 브랜드의 프로모션을 중단할 계획이다. 동사의 이 같은 조치는 '제조상의 혼선'을 줄이고 'Kelly'를 포함한 동사의 기존 브랜드의 향상을 통한 전반적인 제품공급의 업데이트를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시작되는 동사의 멀티브랜드 G3 전략에는 'Goodyear', 'Dunlop', 'Republic' 대신에 'Goodyear', 'Dunlop', 'Kelly' 라벨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자료 : 미국 「Modern Tire Dealer」 (09.12월호)〉

피·렐·리



중남미시장, 산업용타이어부문 성장확대 계획

피렐리사는 향후 3년간 특수용 타이어 부문에서 총 7.5%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 특히 브라질 시장에서의 성장은 상당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사는 남미시장과 브라질시장에서 건설 및 광산용 등 산업용타이어 매출이 각각 25%와 3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공표하였던 중남미 지역 특수용 타이어 판매활동을 위한 1억불 투자계획으로 시장수요에 대응할 예정으로, 동 투자는 작년 7월에 동사가 발표한 08~11년간 3억불 투자계획에 추가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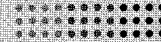
〈자료 : 영국 「Tyres & Accessories」 (2009.12월호)〉

피렐리합작사 러시아 타이어공장 인수 계획
피렐리사와 러시아의 Russian Technologies

State Corp사는 지난 08년 11월 러시아 Samara 지역의 타이어 및 스틸코드 공장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합작사를 건립한바 있는데, 최근 동 합작사가 러시아의 타이어 공장 인수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직 구체적으로 인수 공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자료 :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2010.1·2월 통합호)〉

쿠·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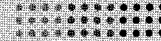


세계 시장 중 중국지역의 매출비중 확대계획

쿠퍼사는 향후 3년간 글로벌 매출 중 중국지역 매출 비중을 25%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사에 따르면 중국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지역 09년 동사의 매출은 전년대비 20% 정도 증가한 6억불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20~25%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동사의 두 개 중국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1,100만개이며, 2010년에는 수 백 개의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동사는 중국생산의 45%를 수출하고 있으나 중국 국내 수요 증가로 향후 3년간 동 수출비중을 35%~40%로 줄일 예정이다.

〈자료 : 미국 「Tire Review」 (2010.1월호)〉

도·요



중국 공장 부지 Zhangjiagang시 선정

09년 8월 1억 500만 불의 투자로 중국 지역 타이어공장 건립을 공표하였던 도요사는 최근 공

장 부지로 중국 Zhangjiagang시를 결정하였다. 동 'Toyo Tires Zhangjiagang Co. Ltd' 공장은 2011년 말 즈음에 가동 예정으로 약 500명의 종업원이 고용될 예정이며, 초기 생산능력은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타이어 200만개 규모이다.

〈자료 : 미국 「Rubber & PlasticsNews」(2010.2.8일)〉

미국 White 공장 500만개 짜 타이어 생산

도요 북미사(Toyo Tire North America Manufacturing Inc)는 최근 White 공장에서 500만개 짜의 타이어를 생산하였다. 동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타이어 250만개로, 이르면 금년 여름에 신규 설비 확대 설치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05년에 공개되었던 동사의 확장프로젝트가 작년에 완료되어 생산설비 부지의 면적은 2배 증가되었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2010.2.15일)〉

Cheng Shin (Maxxis International)

대만 2번째 국내 공장 건립 계획

대만 타이어제조사인 Cheng Shin Rubber Industry Co. Ltd는 3억 7,000만불을 투자하여 향후 2년간 대만 서부지역에 타이어 공장을 건립하고, 또한 중국, 태국, 베트남, 대만의 기존 공장에 3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 공장은 대만의 서부연안 Chang-Hwa County에 건립될 예정으로, 2번째의 대만 순수 국내공장이 될 것이다. 'Maxxis International'란 이름으로 대부분의 국가에 진출해 있는 동사는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 공개는 거부하였고, 동 프로젝트는 여전히 기획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한 미디어에 따르면 동 공장이 승용차용과 트럭용 타이어 모두를 생

산할 것이다. 동 Cheng Shin/Maxxis는 08년에 25억 4,000만 불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세계 11위의 타이어업체로 동사는 중국지역 4개 공장을 포함한 총 7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 : 유럽 「EuropeanRubberJournal」(2010.1·2월 통합호)〉

JK Tyre



중남미시장 타이어공급 확대계획

매출액 기준 세계 22위의 인도 타이어제조사인 JK 타이어사는 중남미 시장 수요 확대에 따라 지난해 인수한 멕시코 타이어회사인 'Tornel' 사에서의 수출비중을 상당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Tornel사의 연간 생산량인 660만개 중 3/4정도가 멕시코 국내 시장에 판매되고, 25% 정도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동사는 금년 내 동 수출비중을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Tornel사의 3개 공장의 설비 가동율은 약 85~90% 수준이다.

〈자료 : 유럽 「European RubberJournal」(2010.1·2월 통합호) K〉

